



언론사 대학평가에서 대학 커리큘럼 평가 실태와 개선 방향

● ● ● 강 홍 준 | 중앙일보 대학평가팀 팀장

지금까지 대학교육의 질적인 측면을 평가하려는 다양한 지표 개발이 있었다. 교육의 성과를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지표들이 질적인 측면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드러내왔다.

이를 볼 때 커리큘럼 평가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동료평가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통계상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I. 들어가며

지난 5월 서울 시내의 한 사립대는 민간 A연구소에 1억여 원을 내고 컨설팅을 받았다. 대학의 국제화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목적이었다. 이 대학의 한 관계자는 “요즘 대학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국제화 부문”이라며 “국제화만을 따로 떼어내 컨설팅을 받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요즘 대학가의 화두는 국제화다. 연초 주요 대학 총장들의 신년사도 국제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2005년을 기준으로 57만 명으로 집계된 고교 졸업생 수가 2020년에는 49만 명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국 학생을 국내로 유치하지 못할 경우, 앞으로 대학의 생존도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다.

국제화는 대학들이 커리큘럼을 뜯어고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국내 대학의 교육과정을 외국 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두 대학 총장의 공동 명의로 학위를 주는 대학도 있다. 국내의 학생들을 위해 복수 학위를 주는 대학도 많아지고 있다. 이럴 경우 대학교수들은 기존의 커리큘럼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 양성이란 가치도 커리큘럼 개편의 또 다른 압력요인이다. 한 연구기관은 최근에 공학 일부 학과의 커리큘럼을 모두 수집하여 기업에서 필요한 내용을 얼마나 다루고 있는지 분석했다. 이 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는 “기업 현장에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대학은 별로 없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지금까지 기업의 대학교육 만족도나 전공과 취업 분야의 일치 정도를 파악해왔다. 기업과 대학 간 기술 불일치(skill mismatch)를 줄여 주기 위해서였다.

이처럼 대학 커리큘럼은 대학 밖의 사회의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언론사의 대학평가다. 중앙일보는 1994년부터 대학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중앙일보 대학평가가 국제화 부문 지표를 신설함에 따라 각 대학들이 국제화 지표를 높이기 위해 영어강의 확대 등 다양한 개선책을 내놓고 있다.

본 글은 언론사 중 국내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는 중앙일보 대학평가와 대학 커리큘럼의 평가문제를 다루려 한다. 언론사의 평가는 그 자체가 대학에 큰 압력이 되어왔다. 이런 가운데 대학들은 언론사의 평가에 대해 정량적인 지표 위주로 평가할 뿐 교육과정이나 교육내용 등 질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제기를 해왔다. 특히 이 가운데 커리큘럼에 대한 질적 평가는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본 고에서는 언론사의 대학평가 중 커리큘럼에 대한 평가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다루려 한다.

Ⅱ. 외부 기관의 대학 커리큘럼 평가 실태

1. 대학 전공과 취업 분야의 일치도 분석

대학은 기업이 필요한 지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한국 교육개발원 등 각종 기관들은 대학교육이 기업의 요구와 얼마나 큰 괴리를 보이고 있는지를 평가했다(〈표 1〉 참조). 기관들의 평가 내용을 종합하면 취업 분야와 학교에서 배운 전공과의 일치도는 조사기관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체로 학력이 높을수록 전공 일치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¹⁾.

하지만 여러 조사 결과들은 기업의 요구와 대학교육 간의 불일치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대학의 커리큘럼과 대학이 요구하는 직무기술을 비교한 결과를 내놓았다. 소프트웨어 분야 관련 기술 8개 영역과 기술 요소 50개를 놓고 전국 75개 대학과 수도권지역 소프트웨어 회사 102개 업체를 비교한 것이다. 평가 방법은 〈표 2〉와 같다. 기술 요소를 놓고 기업은 이를 어떻게 활용하며, 대학은 어떻게 가르치고 실습하는지를 비교해 불일치 정도를 산출한 것이다.

이같은 평가 자료를 통한 대학과 기업의 불일치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교육인적자원부 인력수급과 김선호 과장은 “기업은 기술변화에 민감해 신기술 등에 대한 선호가 분명한 반면 대학은 기술요소 간 중요도에 있어서 편차를 크게 느끼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기업은 기초과목에서 기술요소 중 개발방법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오라클’을 중시한 반면 대학은 별 차이를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1) 교육인적자원부, 개최된 제3차 인적자원개발 회의 보도자료, 2007. 4. 19.

〈표 1〉 취업 분야와 학교 전공과의 일치도 분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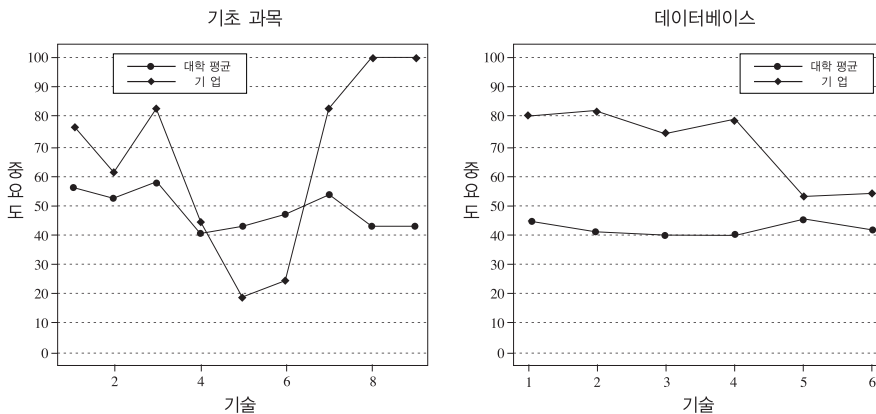
조사기관	분석 자료 및 방법	분석 결과			
		실업고	전문대	대학	대학원
한국교육개발원 (2006)	• 2005년 8월, 2006년 2월 졸업생 56만 명 • 주관적 방법	-	72.6	68.9	95.1
청소년개발원 (2006, 김기현)	• 한국노동패널조사 (5,000가구, 약 13,000명) • 객관적 방법	-	37.1	42.0	56.5
통계청 (2004)	• 경제활동 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33,000가구, 약 7만 명) • 주관적 방법	43	57.7	67.7	
한국고용정보원 (2004)	•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 (만 15세~29세 청년 5천여 명) • 주관적 방법	52.2	61.3	70.3	
직업능력개발원 (2005)	• 대졸자 직장이동 경로 조사 (2001년 대졸자 58,574명) • 객관적 방법	첫 직장 : 33.4 / 두 번째 : 36.0 세 번째 : 41.2 / 네 번째 : 45.4 다섯 번째 : 53.0			

※ 주관적 방법 : 응답자의 반응, 객관적 방법 : 직업사전 등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 일치도 판정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와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조사' 의 전공 일치도는 "보통 이상" 을 의미

〈표 2〉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평가 지표

구분	기업체	대학
평가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기술요소에 대한 사용 여부(A) • 각 기술요소의 발전 가능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요소에 대한 총 이수학점 • 주당 실습시간 • 수업 외 별도 프로젝트 수행 경험 • 학과의 실습환경
요소별 기술 중요도 점수	A×B (200점 만점으로 표준화)	각 항목을 50점으로 표준화한 후 합산 (200점 만점)
질적 불일치 지수(100점 만점으로 표준화) = 산업계 요소별 기술 중요도 점수 - 각 대학 요소별 기술 중요도 점수		



〔그림 1〕 대학과 기업의 기술 중요도

〈표 3〉 대교협 대학종합평가 영역과 가중치

평가 영역	평가 부문	평가 항목 수	가중치
1. 대학경영 및 재정		(9)	(60)
	1.1 경영전략 및 운영	3	12
	1.2 대학의 특성화	2	20
	1.3 대학재정	3	24
	1.4 1주기 대학평가결과 반영	1	4
2. 발전전략 및 비전		(3)	(50)
	2.1 장기 목표와 비전	1	15
	2.2 발전 전략	1	15
	2.3 실행 계획	1	20
3. 교육 및 사회봉사		(12)	(120)
	3.1 교육목적	2	10
	3.2 교육과정 및 방법	3	60
	3.3 학사관리	3	30
	3.4 사회봉사	4	20
4. 연구 및 산학연협동		(9)	(100)
	4.1 연구실적	3	50
	4.2 연구여건	3	20
	4.3 산학연협동	3	30
5. 학생 및 교수·직원		(10)	(90)
	5.1 학생	3	24
	5.2 교수	4	41
	5.3 직원	3	25
6. 교육여건 및 지원체제		(12)	(80)
	6.1 학생지원체제	3	16
	6.2 교육지원체제	3	24
	6.3 연구지원체제	3	17
	6.4 정보지원체제	3	23
계		55	500

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의 커리큘럼 평가

2007년 현재 전국 201개 대학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1982년부터 매년 종합평가와 학문분야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다. 대교협의 평가목적은 회원대학의 교육여건과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대교협의 2주기 대학종합평가는 2002년부터 시작하여 2006년에 마무리되었다. 종합평가 결과는 인정과 불인정으로 구분하여 발표하며, 평가인정을 받은 대학 중에 종합점수를 고려하여 최우수, 우수, 보통으로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학문분야 평가의 경우

〈표 4〉 중앙일보 2006년 대학평가 교육여건 및 재정 부문 지표

지표	가중치
교수당 학생 수	20
교수 확보율	15
2005 학생당 장학금	10
장학금 수혜율	5
등록금 대비 장학금 환원율	5
기숙사 수용률	5
학생당 도서자료 구입비	5
현장 실습강좌 참여 학생 비율	5
학생당 교육비	20
교육비 환원율	10
세입 중 납입금 비율	10
학생 충원율	5
중도 포기율	5

에도 결과 발표 시 인정과 불인정으로 크게 나뉘며, 인정받은 학문분야 중에서 최우수, 우수, 보통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최근 수행한 일부 학문분야의 평가에서는 사회적 요구에 의해 최우수 평가를 받은 대학 중에서 순위를 공표한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인 평가 결과 공표 방식은 아니다.

〈표 3〉은 대교협 평가 중 대학종합평가의 평가 영역 및 평가 부문의 가중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 가운데 커리큘럼 부문은 ‘교육 및 사회봉사’ 부문에 속해 있으며, 타 평가 부문의 지표보다 가중치가 높게 책정되어 있다²⁾.

대교협의 평가 방식은 평가 주기 내에 대학이 선택한 시기에 평가를 받도록 하는데, 사전에 평가인정을 위한 평가 편람과 평가 기준을 대학에 제공하고, 대학은 이를 토대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평가위원들이 이에 대한 서면평가 후 이를 바탕으로 대학에 대한 현지방문평가를 실시하여 사실 확인 작업을 한다. 평가 항목 중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는 질적인 부문의 평가 비중이 높은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교육과정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해 평가를 실시하는 특징이 있다. 커리큘럼 평가 내용은 해당 교육과정이 적정한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등으로 구성된다.

3. 언론사의 대학 커리큘럼 평가

한국에서 언론사에 의한 대학평가는 중앙일보가 유일하다. 중앙일보는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된 대학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대학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일보 평가는 정량적 지표, 투입(input) 위주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커리큘럼에

2) 한국대학교육협회의, 2기 대학평가 보도자료, 2005. 2. 21.

〈표 5〉 U.S. News & World Report 평가 지표 중 커리큘럼과 관련된 지표 (2005년 기준)

평가 영역 (괄호 안은 가중치)	지표	비고
Peer Assessment (학계평가, 25)	타 대학의 교과 프로그램에 대해 5점 척도 평가	숫자가 높을수록 우수, 해당 대학의 교과과정에 대해 잘 몰라서 공정하게 점수 매기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른다'에 표시
		대학총장, 교무처장, 학장 등 대학 관계자 설문조사(전체 4,098명 중 응답률 57%), 시카고 지역 여론조사기관 Synovate에 의뢰
Retention (신입생 재등록률 및 졸업률, 국립대와 학부대학은 가중치 20, 대학원대학 및 종합대학은 25)	신입생 재등록률 (20%)	신입생 재등록률은 2000년부터 2003년 신입생의 다음 가을학기 평균 등록률
	6년 내 졸업자 비율 (80%)	1995년부터 1998년 입학생 중 6년 내 학위 받은 졸업생의 평균 비율
Graduation Rate performance (졸업을 성취 부문, 국립대 및 학부대학에만 적용, 가중치 5)	1998년 입학생의 실제 6년 내 졸업자 비율과 이들의 졸업 비율 예상치 간 차이	학교의 교육비 투자나 학생 개인의 능력이라는 변수를 컨트롤한 상태에서 대학의 교과과정이나 교육정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임.

대한 평가는 정량평가를 통해 측정되지 못하고 있다.

〈표 4〉는 중앙일보 대학평가 지표 중 교육여건 부문의 지표를 나열한 것이다. 중앙일보 평가는 2006년의 경우 교육여건 및 재정, 국제화, 교수연구, 평판도 및 사회진출도, 개선도 등 5개 부문(총 52개 지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교육여건 및 재정 지표의 경우 정량적, 투입 위주 지표가 주를 차지하고 있다.

Ⅲ. 외국 언론사의 대학 커리큘럼 평가 실태

1. U.S. News & World Report 평가

1994년 이후 해마다 실시되는 주간지 『U.S. News & World Report』의 대학평가는 미국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표 5〉는 이 주간지의 평가 지표(총 15개) 중 커리큘럼과 관련된 부분만 떼어낸 지표와 설명이다. 이 주간지가 대학으로부터 얻는 자료들은 대부분 개별 대학을 상대로 학장이나 교수 등이 타 대학의 커리큘럼에 대해 우수하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중앙일보 평가에 비해 지표 수는 3분의 1 규모로 적지만, 커리큘럼과 관련된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평가는 대학교육에 몸담고 있는 학장 등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타 대학의 커리큘럼에 대해 평가를 하는 '동료평가(Peer Assessment)'이며 동료평가 비중이 상당히 높다. 신입생 재등록률이나 6년제 졸업자 비율 등의 지표는 커리큘럼이 제대로 굴러가는지, 이에 따라 학생들은 여기에 만족하는지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표 6〉 영국 『The Times』 평가 지표

지표 번호	지표	평가 방법
1	대학교수 설문조사	40% 대학교수 3,703명에게 자신의 학문 분야에서 세계 30대 대학을 뽑아달라고 요청
2	기업가 반응	10% 전 세계 기업가 736명으로부터 자료 확보(어떤 자료인지는 불분명)
3	교수당 학생 수	20%
4	외국인 학생 수	5%
5	교수 1인당 논문 인용도	20%

2. 『The Times』 평가

영국의 『The Times』의 100대 대학평가는 지표 수가 불과 6개에 불과하며,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는 따로 없다. 이 설문엔 포괄적으로 포함될 뿐이다. 『The Times』의 ‘고등교육 부록’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학평가 방법은 크게 설문 지표(50%)와 통계 지표(50%)로 나뉜다. 설문 지표는 동료 교수평가(40%), 기업가 평가(10%)로 이뤄지는데, 이 단계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간접평가가 이뤄지는 것이다. 『U.S. News & World Report』와 마찬가지로 대학교수들의 동료평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IV. 언론사 대학평가에서 커리큘럼 평가 모색

1. 동료평가의 도입과 한계

언론사의 대학평가는 전문 교육기관에 의한 평가와 지향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교육 수요자로 하여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이 강하다. 이에 따라 눈에 보이는, 그리고 해석의 여지가 적은 양적인 지표가 주로 활용된다. 공학인증원이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각 대학이나 학과가 어떤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준거에서 볼 때 교육수준이 타당한지 관심을 갖는다.

이런 면에서 언론사와 전문교육기관의 지향점은 상당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언론사의 대학평가에서 커리큘럼 평가 등 질적인 측면이 간과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다.

외국 언론기관들의 대학평가에서 커리큘럼 평가는 동료평가라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대학 교수나 학장 등을 상대로 해서 ‘커리큘럼이 우수한 대학을 선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식으로 전체 평가 총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일보는 2003년 대학평가에서 대학의 커리큘럼을 평가하기 위해 동료평가를 도입했다.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등 3개 계열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면서 평판도 부문 지표에 동료평가를 반영한 것이다. 평가 대상 대학의 학장을 대상으로 각 대학 학장들에게 ‘학교 장래 발전성, 교육과정

〈표 7〉 중앙일보 2003년 대학평가 계열평가의 평판도 순위

순위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1	서울대	서울대	포항공대
2	연세대	연세대	서울대
3	고려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4	성균관대	포항공대	한양대
5	서강대	고려대	연세대

운영, 교수 수준, 학생 수준, 교육여건 측면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대학을 각각 5개씩 선정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계열 평가 부문 중 평판도는 총점(250점) 중 50점을 차지했으며, 학교장래 발전 가능성, 교육과정 운영, 교수 수준, 학생 수준, 교육여건이 각각 10점씩 배정됐다. 동료 평가를 통해 진행된 평판도 결과는 〈표 7〉과 같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의 동료평가는 그 이후 평가에서 활용되지 못했다. 동료평가의 한계점이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설문조사에 응한 각 계열의 학장들이 설문을 통해 선정한 우수대학은 전체 110개 대학 중 7~8개 대학에 집중됐다. 3개 계열에서 우수대학으로 거론된 대학은 소수에 그쳤으며, 대부분 대학이 동료평가에서 단 한 번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평판도 지표에서 10위 밖 대학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설문에 응한 대학 학장들이 어떤 대학(학부 또는 대학원)을 졸업했는지 여부가 커리큘럼을 평가하기 위한 동료 평가에서 상당한 영향을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자의 배경 요인이 설문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그 요인을 통제하지 못한 것이었다.

2. 언론사 커리큘럼 평가의 대안

정량적, 투입 위주의 언론사 대학평가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투입 요인만을 따질 뿐 투입 후 어떤 산출이 나왔는지 평가하지 않을 경우 평가의 의미는 반감된다.

문제는 투입 대비 산출 등을 따지기 위한 지표 개발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교육인적자원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질적 불일치 평가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문가를 통한 동료평가는 이러한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다. 게다가 교육의 질적인 측면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커리큘럼 평가는 전문성을 요구한다.

언론사에서 시도하고 있는 정량적인 지표를 통한 간접적인 커리큘럼 평가 역시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중도포기율 지표는 일정 기간 동안 전체 재적학생 중에서 미등록, 자퇴 학생 수를 따져 계산한다. 중도포기율 지표는 대학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이 대학 커리큘럼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중도포기 요인이 반드시 커리큘럼에 대한 불만족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서열의식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학생들의 중도포기나 다른 대학 선택은 커리큘럼에 대한 불만족이라는 요인으로 설명될 수 없다.

이에 따라 동료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각 대학 간 커리큘럼 평가는 언론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도구라고 판단된다. 다만 2003년 중앙일보 평가에서 나타나듯 설문응답 과정에서 나타나는 통계적인 오류 등의 한계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V. 나가며

언론사의 대학평가는 여러 가지 비판에 직면해 있다. 미국 대학들도 순위내기 위주의 평가가 물고 오는 대학사회의 괴행현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주관적이고 검증이 쉽지 않은 자료로 평가하며, 통계상의 오류도 있는데다 가중치 부여가 임의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이에 비해 변화에 관심이 없던 대학들은 대학 밖 외부기관들의 평가 참여로 인해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게 되었다. 대학 스스로가 미래 발전계획을 세워 움직이도록 대학평가가 순기능을 했다는 반론도 있다. 국제화 지표가 등장함에 따라 대학들이 외국 대학과의 실질적인 교류를 모색하는 등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량적, 투입 위주의 대학평가는 질적인 평가를 담아야 할 단계에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커리큘럼 평가는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대학교육의 질적인 측면을 평가하려는 다양한 지표 개발이 있었다. 교육의 성과를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지표들이 질적인 측면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드러내왔다.

이를 볼 때 커리큘럼 평가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동료평가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통계상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강홍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였고, 동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에서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중앙일보 교육부 출입기자, 서울시교육청 출입기자(사회부), 국제부 기자, 생활부 기자,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FSU) 교환 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중앙일보 대학평가팀 팀장으로 재직 중이다.